

“카카오T 택시 ‘콜 몰아주기’ NO... 배차 알고리즘 차별없다”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 검증 일반 기사 단거리 호출 수락 낮아 가맹기사 모든 거리 성사비율 동일 가맹-비가맹 모두 충분한 배차기회



김현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배차에 있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사이에 '콜 몰아주기'와 같은 차별적인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기사 대 일반기사의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성사 비율을 따져본 결과, 일반 기사는 단거리 호출에 대한 수락 비중이 낮았고 장거리를 많이 잡아 중장거리콜을 선호했다. 반면, 가맹기사는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모두 성사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맹기사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이 자동배차되는 반면, 일반택시에는 목적지가 표시돼 비가맹기사가 고객 콜을 선택할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택시 형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번 발표는 서울시가 지난해 실

태조사를 통해 제기했던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과는 상반된 내용으로서 관심을 모은다.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 소스코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의 사회적 책임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발족한 기구로, 택시 배차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 출범했다. 또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학계 교통분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알고리즘 핵심 원리에 대해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 공개를 권고했고,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카카오T 택시 배차 알고리즘의 차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차 로직 ▲소스 코드 ▲소스코드와 서버 운영의 일치성 ▲배차 실적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로직 운영 현황 등 4가지 관점에서 정밀히 검증했다.

김현 위원장(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 융합학과 교수)은 "위원회가 카카오T 콜 발생건수 17억건 이상의 전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호출이 들어오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인 일반택시 모두에 충분한 배차기회인 콜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 택시 기사의

대기시간당 콜 카드 발송 건수는 1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담은 택시 호출 정보인 전체 중형 호출 콜 카드는 99%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닌, 과거 운행 행태를 반영하지 않은 예상 도착 시간(ETA) 스코어 배차로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콜카드 발송 대비 수락률은 가맹 및 일반 기사 사이에 편차가 있었고 일반 기사의 중장거리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김현 위원장은 "일반 기사의 배차 수락률이 가맹택시 기사에 비해 낮은 이유는 일반기사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따져 선택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기사 선택의 자유' 문제는 차별요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맹택시는 5km 미만의 단거리는 58% 수락했으며, 5~10km 사이의 중거리는 25%, 10km를 초과하는 장거리는 17%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기사는 단거리 호출을 50% 수락했고, 중거리는 27%, 장거리는 22%로 장거리 비중이

더욱 높았다.

위원회는 특히 소스코드가 서버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알고리즘에 대한 로직 대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7월 29일 카카오모빌리티를 불시해 방명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스 코드에 맞게 서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 발간을 위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경우 및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경우에 한해 실적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김현 위원장은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이 사회와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있게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승객, 가맹기사, 운수사업자, 학계,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승객-기사-카카오모빌리티 3자가 윈윈하는 바람직한 배차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 U+, 국내 첫 '스마트GX' 선보인다

스마트워치 연동 생태정보 확인 '코코어짐', 경쟁하며 그룹 운동

LG유플러스는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운동 중 생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개념 홈트 서비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IPTV용 서비스인 'U+홈트Now'와 이용자간 경쟁하며 운동할 수 있는 '코코어짐(Cocore Gym)'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GX(Group eXercise, 그룹운동) 시장을 국내 최초로 열고 고객의 운동경험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신개념 홈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GX'를 표방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디지털 기술을 의미하는 '스마트'와 피트니스클럽에서 진행되는 그



LGU+ 모델이 U+tv와 갤럭시워치를 연동해 코코어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LGU+

룹운동인 'GX'의 합성으로, 함께 운동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랭킹으로 기록한다. 그룹운동시 느끼는 에너지와 경쟁심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홈트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뷰리서

치'는 전 세계 홈트레이닝 콘텐츠 시장이 2018년 기준 3조원에서 약 8배 증가해 2026년 2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SK C&C, AI 통한 제품 수요 예측서비스

'한살림' 분석 데이터 세트 생성

SK C&C가 AI를 통해 명절 연후 이벤트나 특가 세일 등 판촉활동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나섰다.

SK C&C가 친환경 직거래 협동조합 '한살림'에 AI 수요 예측 및 디지털 발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한살림은 전국 240개 매장 및 온라인 통합 매장, 80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다.

이번 사업은 2,300세대 생산자들이 매일 공급하는 수백 품종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조합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신선품 유통을 효율화하고 배송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SK㈜ C&C는 아큐패브릭 스위트

트(Accu,Fabric Suite)를 활용해 한살림에 최적화된 AI 수요 예측 서비스 '한살림 오토엠엘(AutoML)'을 제공한다.

한살림 오토엠엘을 이용하면 한살림 물품군에 대한 품목 특성을 대변하는 분석 데이터 세트 생성을 시작으로 ▲데이터 세트 간 변수 탐색 ▲변수 간 조합 ▲분석 모델링 작업까지 모두 한 번에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설명 가능한 AI로 분석 모델을 시각화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다.

아큐패브릭 스위트에는 AI 모델 자동 생성을 도와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큐인사이트플러스'와 각종 AI 분석 모델을 사전 탑재한 블루프린트형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로봇'이 탑재돼 있다. /최빛나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KBS UHD NPS 구축

인프라 고도화 사업 수주

CJ올리브네트웍스가 KBS의 UHD NPS(Network Production System) 구축 및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수주하며 방송미디어 SI 분야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그동안 KBS 비디오 및 아카이브 통합, 하드웨어 증설 및 교체, UHD 송출 시스템 구축 등 공영방송 KBS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파트너사로 참여해왔다. 이번 사업 수주는 이전 사업들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신뢰와 인프라 노하우를 높게 평가 받은 결과다.

이번 사업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

NPS 편집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NPS 제작공유 스토리지 증설 ▲NPS 서버군 교체 ▲UHD 마스터링, 색보정 작업 환경 구축 등 NPS 스토리지 증설 및 인프라 고도화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방송미디어 산업에 기반하여 자체 개발한 SI 구축 프로세스 방법론과 사업관리 도구를 사업 수행에 적용한다. 분석 단계에서부터 구축, 운영 전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와 품질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성능 UHD 시스템을 도입하여 드라마, 예능, 교양 등 콘텐츠별 고품질, 고화질의 영상제작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텔링크-한패스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SK텔링크가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기업 한패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 고객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및 특화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한패스는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2018년 모바일 간편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해외송금부터 전자결제,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외환 금융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와 차별화된 송금 프로세스로 현재 120만 앱다운로드와 누적 해외송금 거래액 3.3조를 달성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한국엔컴퍼니, 車 납축 배터리 기술력 뽐내

유럽 車 부품 전시회 참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의 지주사 한국엔컴퍼니가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서 차량용 납축 배터리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엔컴퍼니는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2022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이 회사는 전용부스를 꾸려 배터리 브랜드 '한국'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선보이기로 했다. 이번에 전시하는 AGM 배터리는 최근 보편화되는 스타트앤스톱 기술 적용차량이나 고성능·고가 차량에 쓰인다. EFB 배터리는 성능이 강화된 MF배터리로 보급



한국엔컴퍼니 글로벌 배터리 브랜드 한국 차량용 납 축 배터리.

형 스타트앤스톱 차량에 들어간다. 스마트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한 전시부스도 마련키로 했다.

이 회사는 198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보수 배터리를 출시한 후 품질경쟁력을 끌어올려 2005년 공회전 제한장치용 AGM배터리, 2013년 초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했다.

/양성운 기자 ysw@